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착착 준비” 유발 하라리, 기조연설

7월 21~22일 온·오프 개최...해양항만산업 미래 등 6개 세션



1, 2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포스터
3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기조연사 유발 하라리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7월 21일 개막하는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2) 기조 연사로 나선다. 개막 기조연설을 맡은 유발 하라리는 ‘인류 3부작’으로 불리는 책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등을 펴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기술 발전 이면의 기후 위기, 불평등 등에 대한 인류의 대처 방안과 바다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포럼은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The World Calls, The Ocean Waves)를 주제로, ‘세계 교역 환경 변화와 해양항만산업의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해양산업의 영향 및 발전방안’ ‘주요 항만 ESG 현황’ 등을 주제로 한 세션들로 구성된다. 또 ‘비온드 코로나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와 대양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과 ‘인천항 개항 1천650주년 및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인문학 여행’을 특별 세션 주제로 다룬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인천국제해양포럼의 기조 연사와 세션 주제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7월 21~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IPA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관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2020년에 처음 열렸다.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오프라인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사전등록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참석자에게는 발표자료집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포럼 전체 행사는 공식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된다. 아울러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김하늘 작가의 ‘스택 앤 스택’(Stack and Stack)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최준욱 IPA 사장은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해양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 포럼에는 해외 19개국의 1천635명이 참여했다. ▼